2월
셋째 주

가정예배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찬양해요 찬송가 254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열왕기상 12:25-33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벧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벧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말씀 이해하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출 32장).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나의 계획을 위해 말씀을 뒤로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28절)?

   ▶ 이에 계획하고 □□□□□□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들이라 하고

2. 여로보암은 우상을 어느 지역들에 세웠습니까(29절)?

   ▶ 하나는 □□에 두고 하나는 □에 둔지라

3.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신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27절)?

4.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바로 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 보세요.

5.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세워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만일 무엇이라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도록 합시다. 또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가족과 함께 방법을 찾아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